

‘노벨문학상’ 시대의 명작을 읽다



‘닥터 지바고’



‘붉은 수수밭’



‘ 분노의 포도’

‘소년이 온다’, ‘데미안’, ‘호수의 섬 이니스프리’, ‘분노의 포도’, ‘닥터 지바고’, ‘백년의 고독’, ‘소년이 온다’...

위 열거한 작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들이다.

지난해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어느 때보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독자들에게 울림을 준다.

노벨문학상 수상작품을 읽는 강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박물관은 1학기 문화강좌로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탐독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시대를 읽는 문학’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문화강좌는 3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다. 수요일 오후 2시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

강좌 강사진은 모두 전공 교수진을 초빙해 작가와 작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의 후에는 수상작과 관련 영화 무료 상영이 예정돼 있다.

먼저 첫 강의를 신혜선 공주대 교수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으로 문을 연다. 작품은 소년 싱클레어가 성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성장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들다는 메시지를 투영돼 있다.

전남대박물관 1학기 문화강좌 3월 19일~6월 4일 용지관 컨벤션홀 ‘소년이 온다’·‘데미안’ 등 교수진 강의·영화 무료 상영도

다음으로 윤일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호수의 섬 이니스프리’를 읽는다. 예이츠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귀의 본능과 정서를 담고 있다.

올가 토카르추크의 ‘죽은 이들의 뼈 위로 쟁기를 끌어라’는 최성은 한국외대 교수가 소개한다.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의 작품으로 변방으로 밀려난 보잘 것 없는 인물이 연대를 매개로 나약한 존재를 지켜낸다는 내용이다.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도 있다. 대공황 시대 미국의 절망적인 현실을 핏진하게 형상화한 소설로, 인간의 존엄과 미래의 희망을 그렸다. 임영 동양대 교수가 강의를 한다.

오른하 연세대 교수와는 장 폴 사르트르의 ‘닫힌 방’을 읽는다. 사르트르의 작품 중 가장 많이 알

려져 있으며 작가의 실존주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조구호 한국외대 교수와 읽는 ‘백년의 고독’은 비교적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소설이다. 콜롬비아 출신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작품으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평을 받았다. 현실에 대한 풍자를 신화적 기법으로 풀어냈으며 대중적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신형철 서울대 교수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토대로 작품 속에 투영된 메시지와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체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광주 금남로 일대는 80년 5월 당시 ‘소년이 온다’의 수많은 주인공들의 눈물과 아픔, 고통이 배어 있는 곳이다.

정재민 한국외대 겸임교수는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를, 이희경 전남대 교수는 모엔의 ‘붉은 수수밭’을 시민들과 읽을 예정이다.

이정민 학예연구사는 “이번 ‘시대를 읽는 문학’은 노벨문학상 수상작을 토대로 시대와 역사, 문화 등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시간”이라며 “인간을 비롯해 세계를 둘러싼 다양한 존재들의 의미 등을 사유하고 탐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강료 일반 12만원, 만 65세 이상 및 전남대 교직원·가족 10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 속 공간에서 주말마다 음악 공연

광주문화재단, 공연 단체 다음달 14일까지 모집



2023년 광주문화재단이 선보였던 ‘우리 동네 프린지’ 야외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ACC 상상마당, 푸른길공원 등 일상 속 공간에 스며드는 공연이 펼쳐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각 구별 야외 무대에서 퍼포먼스, 클래식, 성악 등 다채로운 장르를 만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하 재단)이 올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출연할 공연 단체를 오는 3월 14일까지 전자메일로 접수받는다.

야외공연이 가능한 공연예술 전장르(7-80분 소규모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총 1억2000만원(팀당 300만원·40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연계획서와 공연희망일 조사서 등을 제출해 야하며 선발된 팀은 4·6월, 9·11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공연하게 된다.

동구는 ACC 상상마당, 남구 푸른길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3개소는 첫·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서구 삼무시민공원과 북구 양산호수공원 등 2개소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공연한다.

타 단체와 협업이나 갈라, 창작공연 등 모든 레퍼토리 지원 가능하다. 재단은 광주예술의전당과 협력해 자체 공모로 선정된 민간단체 40회, 전당 공연 20회 등 연중 총 60 무대를 기획 중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현장 지원·홍보를 맡을 코디네이터도 선발한다. 5개 구별로 각 1명씩 총 5명 선정(오는 3월 12일까지 서류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도서지역 청소년들에 국악 체험 기회

국립남도국악원, 3월 11~14일 참가 학교 신청 접수



국악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민요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도서 지역의 분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학교 등에 국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학생들이 가·무·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고 사물놀이, 민요도 즐길 기회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2025 청소년 국악체험’에 참가할 학교를 오는 3월 11~14일 학교별 공문을 통해 국악원 장악과로 접수받는다. 사업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매월 1회) 국악원 전악 및 연수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라면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다. 단, 도서 지역의 분교나 대중교통 소외 지역 등을 우선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사물장구, 민요, 강강술레 체험을 시작으로 국악 공연을 관람하는 ‘당일체험1’ 코스, 가·무·악 공연을 즐긴 뒤 퇴소하는 ‘당일체험2’ 코스로 구성된다. 각각 최대 80명, 120명(인솔 포함)까지 참여할 수 있고 인원수에 따라 타 학교와 연계해 진행 가능하다.

국악원 장악과는 “청소년들이 교과서 속 국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악 관심을 증진하는 ‘국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접수 받는다”며 “국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거나 공연까지 관람하는 등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관심 있는 학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참가비 무료./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두환 장남 설립 ‘북플러스’ 파산 신청

출판사 600여곳 피해 우려...한국출판인회의 “채권단 구성”

유동성 위기를 겪던 출판도매업체 북플러스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북플러스는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66) 씨가 1998년 세운 출판 회사로 교보문고, 웅진북션, 한국출판협동조합에 이어 4번째로 큰 도매업체다.

거래처가 600여곳이 넘는다는 점에서 출판사들의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출판계에 따르면 북플러스는 지난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이 인용되면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계산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회생과는 달리 기업의 계속 가치가 없을 때 진행되는 절차다.

한국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최대 주주 관련 물발채무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예상돼 북플러스가 파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북플러스는 이달 들어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주주 A씨가 회사 주거래은행을 압류해 현금 흐름이 급격히 악화하면서다. A씨는 지난 3일 약 4억8000만원을 압류했고, 7억

원 상당을 추가로 압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플러스는 전재국 씨가 세웠으나 지분매각을 단행하면서 2019년 A씨가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이후 지분을 합하면 전씨의 지분율이 더 높아 회사의 여러 권리를 둘러싸고 소송이 잇따르는 등 양측이 대립해 왔다.

2023년 감사보고서 자료를 기준으로 A씨 지분율은 32.43%, 리브로 26.07%, 전재국 19.71%다. 전재국 씨는 서점 리브로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한국출판인회의는 북플러스의 파산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6일 채권단을 구성하고, 출판사 당 채권 금액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손자녀 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신청 자격

1. 손자녀 6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2.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실제 광주 거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50% 이하인 세대
※ 휴직자(육아휴직 등)는 미취업자로 구분. 단, 출산휴가 기간은 가능
5. 조손가능의 자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여부 확인/조손가정증명서)
6. 서비스 이용기간 : 최대 3년

간단한 신청방법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 363-9401~2
- 팩스 : 363-9403
- 이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사)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 전화 : 062-363-9401~2
- 홈페이지 : <http://www.gcow.or.kr>
-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BKHCj?from=qr

입원아동 돌봄서비스

소중한 우리아가 아플 때,
돌봐줄 누군가 필요할 때,
아동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 대상** 병원에 입원한 만3개월~12세 이하 일반 아동 (신청당시 광주거주 3개월 이상인 일반 아동)
- 내용** 입원아동 간병 및 종합돌봄서비스 제공 (복약, 책임어주기 놀이·정서지원 등)
- 장소** 병원 입원실(통합간병병동 제외)
- 이용시간** 08:00-20:00
1일 최소 4시간 ~ 최대 12시간
★ 8시간 초과시 시간당 등급당가에 7천원 추가
★ 한 아동당 연 200시간 예산범위내 지원
- 신청문의** 1899-5912, (062) 716-9405
- 팩스번호** 050-8094-5912